

국정감사 위해 광주 온 민주당 박지원 의원 인터뷰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은폐 급급 朴정부 ‘정치실종’이 혼돈 불러”

광주교법 및 광주교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23일 오전 광주를 찾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목포)은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치 실종’이 지금의 정국을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기보원, 군, 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은폐 하는데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대선 불복은 많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두루 거친 경력이 묻어나듯 비교적 담담하게, 하지만 조목조목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현재 정국을 어떻게 보고 있나

▲ 모든 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을 인정하고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야 하는데, 모든 사안을 자신이 결정하고 있다. 새누리당까지 포함해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한마디로 ‘정치 실종’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3차 회담 당시 박 대통령이 “덧글로 당선됐다는 것이냐”라고 격앙했었다고 전하자, 청와대가 “김 대표가 소설을 쓴다”고 반응했다는 보



지 않을 것이다.

- 민주당 내에서 ‘대선 불복’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일부 강경 세력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많은 국민은 이를 원하지 않는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 당시 얼마나 큰 역풍이 불었는가. 국민의 손을 잡고 가야하며, 헌정 중단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정원, 군, 보훈처가 대선에 불법으로 개입했다면 이를 분명히 밝히고 처벌해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우선이며, 그 다음은 국민이 결정할 문제다.

- 국정원 개혁 방향은.

▲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우선이다. 개인적으로도 분단 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해 대공 수사권은 가져야 하지만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 민주당이 아담답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다. 안철수 현상에서 볼 수 있듯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욕구는 매우 강하다. 특히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호남에서 더욱 그렇다. 민주당이 환골탈태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를 과감히 물갈이해 공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역민들도 민주당을 지지할 리 없을 것이다.

- 호남 소외론이 더 거세지고 있다.

▲ 호남 출신이 전국적으로 소수가 됐고, 민주당 내에서도 호남 의원들은 소수다. 호남만으로 (재집권은) 불가능하겠지만 반대로 호남을 제외하고는 역시 (재집권) 할 수 없다. 지금 인구는 500만명도 안 되지만, 출향한 800만명이 전국에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함께 공동체를 발전시키는데 노력했으면 한다.

/윤현석기자 chadol@·사진=최현배기자 choi@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오늘 ‘윤곽’

후보추천위 회의... 김진태·길태기·소병철·김현웅 등 10여명 심사

‘흔외자 논란’으로 지난달 30일 퇴임한 채동욱(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10여명이 후보군에 올랐다.

23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중구 전 법무부 장관)가 2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심사 대상자는 10여명이다.

지난 7일 구성된 추천위는 8일부터 15일까지 개인·법인·단체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은 뒤 해당 인사들로부터 검증 등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관련 법규상 추천위는 각계에서 추천한 인사들과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인사들을 합쳐 심사를 벌여 최종 후보자 3명 이상을 장관에게 추천한다.

심사 대상자 중 검찰 출신 외부 인사는 박상옥(56·11기·경기) 전 서울북부지검장, 김진태(61·14기·경남)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홍일(57·15기·충남) 전 부산고검장, 석동현(53·15기·부산) 전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포함됐다.

현직에서는 연수원 15기인 길태기(54·서울) 대검 차장과 소병철(55·전남) 법무연수원장이 후보군에 들

었다. 16기에서는 임정혁(57·서울) 서울고검장과 조영관(54·경북) 서울중앙지검장, 김현웅(54·전남) 부산고검장, 이득홍(51·대구) 대구고검장 등이 포함됐다.

추천위는 검찰총장이 공식인 상황에서 최근 국정원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등 검찰이 심각한 조직 내홍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24일 회의에서 최종 후보자들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며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을 임명한다.

차기 총장은 검찰의 조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리더십과 수사·지휘 역량, 내·외부 신망 등의 요소가 두루 감안돼 임명될 전망이다.

추천위는 당연직 5명, 비당연직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은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장, 신현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검사장급 이상 검찰 경력자 1명 및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가 3명)은 김중구 전 장관, 문창극 고려대 석좌교수, 이영란 숙명여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총장이다.

/연합뉴스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매우 중요 지방정부 사업 전 과정 공개해야”

朴대통령 지방자치발전위 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심대평 위원장, 권경석 부위원장 등 대통령소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민간위원 2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주재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한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 대통령은 “우리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선진행정이 늘어나면서 재정운영이 방만해진 부분도 있었다”며 “지방자치도 시대변화에 맞춰 보다 성숙하게 틀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특히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

제는 지방정부에서 펼치는 사업과 정책의 전 과정과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방이 경제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경쟁력을 높여 지방주민들이 행복하면 경제부흥이라는 국정기조, 국민행복이라는 국정기조와 맞는 것”이라며 “또 각 지역이 가진 문화적 특색에서 창조경제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은 대선 불복 원치 않아 검찰 철저히 수사토록 해야 내년선거 물갈이 공천 없으면 지역민도 민주당 지지 안할것

도를 봤다. 야당 대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인데도, 청와대가 야당 대표를 그런 식으로 취급한 것이다.

- ‘국정원 덧글 사건’의 파장이 크다.

▲ 민주당 10년을 살아온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 군, 보훈처 등이 총체적으로 정치에, 그것도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는데, 대통령이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검찰의 의로운 수사를 보고의 결과로 밝혀지면서 결국 수사를 하지 않고 덮으려는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제가 1000만원의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면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결국 의원직이 박탈될 것이다. 이 자금이 당선에 영향력을 끼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불법·부정선거만은 사실이기에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이다.

- 박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한다는 것인가.

▲ 민생을 외치는데, 민주당의가 없는 민생은 사상 누각이다. 문제를 더 이상 키우지 말고, 전 정권의 책임으로 선을 긋는다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고 관계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면 된다. 수사 못하게 하고 ‘찍어내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이 응답하

지방정가

광주시의회, 교육정책 조례 제정

광주시의회는 23일 광주시교육청의 교육정책과 조례에 대해 사후평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례를 제정했다.

홍인화 시의원 김민중 시의원

서정성 “우치공원 관리·감독 허술”

광주시의회 서정성(민주·남구 2)은 23일 “우치공원 해양전시관 화재는 광주시가 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함으로 나타난 예견된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해양전시관은 전 위탁자였던 금호패밀리랜드 측과 2005년도에 계약을 맺어 영업을 해 오던 우치공원의 관리 위탁자가 현 위탁자인 우치패밀리랜드 측과의 임대계약 문제로 3개월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탁계약시 우치공원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약에만 급급한 광주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대가 학교 내에 있는 헌혈의 집을 폐쇄하려고 한다”며 “국립대가 혈액원을 몰아내고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은 민주와 인권의 중심대학인 전남대 명성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깨끗한 학교만들기 적정 임금을”

광주시의회 전주연(통합진보·비례) 의원은 23일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깨끗한 학교 만들기’ 용역근로자들의 평균 실수령액이 71만원에 불과해 올 해 최저임금 85만536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용역업체는 용역비가 3년째 동결되고 시간당 최저임금이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변칙적인 방식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진선거 “전대 헌혈의 집 폐쇄안돼”

진선거(민주·북구 1) 광주시의원은 23일 “전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 061-333-7077,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선임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임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7가구)
분양가액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살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련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신운지구 영광 →
어등산골프장 호남대학교 →
어등산분리단지

☎ 심속 진환경 병풍주거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출장로5가 버스도로 대지777㎡(235) 공사지가 17억17천 원오피스텔, 상가개발적합 9억6천
- 함평군 영암읍 칠두는 여관 대지 320평 건평211평 객실 21실과 함께 있는 2중 주거지 504평 주거지에는 소형 APT나 다세대주택 대입4층 교합도 가능 10억5천
- 원동·다세대주택지 북동상업지 64평 매도1억6천
- 계림동 구호택건물 대지 542㎡(164) 건평 1200평 요양시설·병의원·한의원·사육동에 적합 18억
- 대인동 소방도점 상업지역 786㎡(238) 오피스텔·생활주택·다세대주택 9억5천
- 조선대학교일 동명동 고시원과 주택 및 사무실용 건물4동 대지321평 건물592평 고시원176실 전세5천만원에 월 3500만원선 수입예산. 대출9억 임대수익생활에 적합. 소유권 이전은 법인이전 가능함 17억
- 공창부지 나주시 남평읍 비평정도로부근 2192㎡(663)와 주택 매도 2억4천

매도·임대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213) 원동·투움·쓰리룸 927허가. 주택가격 12억가능. 투자에 적합 7억4천
- 매도. 신안군 지도읍 아파트. 중도에 슬로시티와 엘도라도 가는 길. 바다가 보이는 별장용APT. 모임이나 회사의 복지시설도 적합. 30평과 41평이 있고 대출은 8천에서 1억가능. 가격은 전세10000에 월40선. 매대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자지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구) 두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서관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부동산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임인가)
근린시설임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 동구 지산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241㎡ 건평307㎡ 감정가4억
- ▷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평2821㎡ 감정가46억 최저가26억
- ▷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평2309㎡ 감정가13억 최저가7억

단독주택

- ▷ 북구 장동동 전원주택 대지763㎡ 건평137㎡ 감정가1억8천만
- ▷ 북구 운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건평161㎡ 감정가1억 최저가7천만
- ▷ 나주시 남내동 2층주거 2층주택 대지319㎡ 건평297㎡ 감정가2억3천만 최저가1억3천만

공장및창고

- ▷ 북구 대촌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 건물303㎡ 감정가11억 최저가8억
-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30억 최저가17억
- ▷ 강진읍 송덕리 냉동.저온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27억

토지매매

-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1750㎡ 상당후 가격조정
- ▷ 무안군 해제면 덕신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대3.500만
- ▷ 광산구 지평동 자연복지 대지.전 2115㎡ 매대5천만(조정가)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영천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 전념여고 건너편 ◀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